

드라마 조명

김 태 흥
MBC 제작 기술국 영상부

1. 드라마 조명이란?

TV드라마의 조명은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기본이 된다. 특히 영상미를 강조하는 요즘의 추세로 볼 때 드라마 조명의 역할은 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기초가 된다. 드라마 조명은 쇼와 같이 화려하고 감성적이지는 않지만 드라마의 성격과 흐름을 조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연기자의 감정을 보다 강조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드라마 조명은 크게 스튜디오 조명과 야외조명으로 나누어 지는데 여기에서는 스튜디오 조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드라마의 성격상 여러 가지의 드라마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간극(수목 또는 주말)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2. 제작전에(A)

1) 연출자와 수시로 만나라.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전에는 연출자와 수시로 만나 드라마의 배경과 극의 흐름 출연자의 성격, 시대적 배경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세팅구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미흡한 면이 많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조명감독이 드라마를 위하여 연출자와 수시로 접촉을 취하여 보다 나은 조명을 연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연습 대본 등을 충분히 읽어야 한다. 연출자와의 공감대 형성은 극의 흐름상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항이다.

2) 세트 디자인과 충분한 협의를 해라.

드라마 조명은 세트가 어떻게 세워 졌느냐에 따라 조명의 위치와 효율적인 조명 설계가 이루어 진다. 그래서 조명감독은(세트디자인도 마찬가지로) 부단히 세트 디자인과 협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을 하는 작업을 수시로 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요즘의 드라마는 스튜디오에 맞지 않게 대형화로 인하여 창문에 커튼을 치거나 간유리로 처리를 많이 하는데 디자인과 협의하여 간유리를 투명유리로 바꾸고 노출되는 부분은 사진세트등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을 그들과 상의해야 한다.

3) 소도구 담당자와 유대강화를 해라.

드라마 조명의 세팅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소도구 설치와 일이 겹치게 되는데 이것을 보다 슬기롭게 해쳐 나가기 위해서는 소도구 담당자와 긴밀한 약속을 통하여 서로의 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즐겁게 세팅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최소한 조명바톤으로 인하여 소도구의 밀차가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 한가지 소도구 설치시 정면세트에 유리가 끼워진 액자로 인하여 조명기구의 반사 또는 빛반사가 많이 생기는데 사전에 협의하여 각도 조절 또는 다른 소도구로 대체하는 방법등도 그들과 상의해야 한다.

4) 카메라맨과 친해라.

드라마의 경우 쇼와 달리 즉흥적인 콘티는 거의 없으나 그림을 담아내는 파트가 카메라인 만큼 카메라맨과의 친밀한 관계는 보다 나은 영상미를 이끌어 낼수 있으며 극의 내용에 따라 어쩔수 없이 카메라 앵글의 위치에 세우게 되는 스탠드등도 보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명세팅전에 조명감독의 할 일은 무수히 많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스튜디오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사항을 적어 보았다.

얼마나 조명감독이 부지런히 움직였느냐에 따라 그 드라마조명의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 지느냐가 판가를 된다.

3. 제작전에(B)

1) 조명세팅하기전에 조명감독은 20~30분전에 세팅

할 스튜디오에 내려와 세트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소도구의 위치와 세트와 조명바톤의 위치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그래서 세팅시 필요한 조명기구의 선택 등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해 봐야 한다.

2) 연습대본 또는 콘티대본을 읽어 극의 흐름과 조명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불필요한 조명세팅은 자제하는 합리적인 구상을 해야 한다.

3) 당일 근무자를 체크하여 적절한 일의 분배를 통하여 효율적인 세팅에 임해야 한다.

4) 주변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세팅 및 녹화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세팅시작전에 LO(LIGHT OPERATOR)와 기타 조명 보조요원과 오늘의 극의 내용과 대강의 흐름을 설명하고 조명의 분위기를 이해시켜 준다. 이때 한잔의 차를 마시고 일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6) 조명세팅은 전기와 기계, 그리고 많은 조명기구를 움직이는 복합적인 일이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할 기을이지 않으면 안된다. 조명기구 설치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여 전기 또는 조명기구 이동 및 설치시 손의 부상에 예방을 해야 한다. 착용하는 신도 구두 보다는 운동화가 좋고 복장도 정장 보다는 청바지등이 작업하기에 용이하겠다.

4. 세팅과정

드라마의 경우 보통 LD(LIGHT DIRECTOR)와 LO를 포함한 8~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외부용역 5명은 조명세팅후 카메라 케이블 보조업무를 겸임한다. 세트에 따라 하나의 팀으로 모두 함께 세팅하기도 하고 2개조 내지는 3개조로 나뉘어 조명기구를 바톤 또는 바톤걸이 등 조명보조장치에 설치하게 되는데 조명감독은 LO에게 전반적인 조명기구의 위치와 개략적인 설명을 곁들여 지시를 내린다. LO는 LD의 지시사항과 조명디자인의 상황설정(연출자가 콘티를 짜면서 시제 및 상황을 체크해줌) 등을 종합하여 기타 조명 보조자에게 지시를 하며 같이 작업에 임하게 된다. 같은 세트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LD는 조명기구의 위치선정에 빠른 판단을 내려 조명작업에 임해야 하고 특별한 장면이 있는 경우의 세팅은 더욱 정확하게 세팅에 임해야 한다.(사진 1)

세트의 사안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주간극의 경우 조명기구 설치작업은 대개 2시간 정도면 끝이 난다. 기구의 설치가 끝나면 10분 정도의 휴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명기구의 조정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조명기구의 설치작업중(대개 10시부터 10시



사진 1. 드라마 조명기구 설치과정



사진 2. 세팅에 완료된 드라마(전원일기)

30분정도)에 드라이리허설이 시작된다. 드라이 리허설을 감안하여 조명기구 설치시 주요장면의 세트를 먼저 설치하여 리허설시 세팅과 연극자가 겹쳐 서로 불편함이 없게 한다.

조명등의 조절은 주로 LD와 LO가 맞추는 데 보다 단순한 업무는 차석LO에게 맞기는 경우도 있다. 리허설 과정에서 LD는 종종 연출자와 드라이 리허설에 참석을 하여 연극자의 동선을 살펴 조명기구의 위치를 재 점검하고 조명기구의 위치를 변경하기도 한다. 조명등은 조정봉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맞추는데 조정봉은 빠

른 시간에 조절이 가능하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다리를 타고 손으로 맞추는 경우는 정확하기는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감독은 시간안배를 적절히 조절하여 세팅에 임해야 한다.

1시간 20분에서 1시간40분 정도이면 조명기구 조절하는 작업이 끝나게 되는데 불필요한 조명기구의 처리와 조명창고의 정리정돈을 지시하고 식사후 녹화에 임하게 된다. (사진 2)

5. 녹화전에

녹화전에(포괄적의미의) 조명감독은 지난주 방송분의 조명에 관하여 모니터를 해야 한다. 연출자는 물론이고 비디오맨, 카메라맨과의 그림에 대한 부단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연기자와의 대화는 필수이다. 드라마의 경우는 연기자의 얼굴이 80%이상 보여지기 때문에 조명감독은 연기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모니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연기자 얼굴에 대한 좋고 나쁨은 연기자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들의 지적을 수렴하여 드라마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하고 고쳐주어야 한다.

6. 카메라 조정

카메라조정은 MBC의 경우 당일 녹화의 가장 빈번히 나오는 방세트나 거실세트를 설정하여 GAMMA와 WHITE BALANCE를 조절하고 분장이 끝난 여자 연기자를 모델로 하여 SKIN TONE을 맞춘다. 일각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균일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항상 조정이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주어진 여건에 따라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7. 녹화과정

녹화시작은 드라마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MBC의 경우 2시 또는 2시30분에 시작을 한다. 아침드라마를 제외하고는 부조에서는 스튜디오제작물만 제작을 해 편집실에서 야외분과 연결하여 효과, 음악을 붙쳐 완제품을 만든다.

녹화시 조명팀의 운용은 부조에 LD와 콘솔에 매도리된 조명등을 켜는 차석LO, 스튜디오내에는 수석LO와 보조자로 구성이 된다. 녹화시 조명기구의 미세조정은 수석LO가 주로 담당을 하고 굵직한 사안의 미세조정은 LD가 직접 내려가 조명수정에 임하게 된다. 조



사진 3. 녹화시 콘솔작업

명수정을 수시로 하는 이유는 오전에 드라이리허설만 했기 때문에 연기자의 동선과 조명세팅의 동선이 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LO를 통하여 미세 조절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재수정작업을 하게 된다. 대본을 읽고 시제를 파악하여 철저히 준비한 세팅이라도 카메라 리허설을 거치지 않은 녹화에는 조명의 미진한 부분이 노출이 된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계속되는 녹화 스케줄(드라마를 찍어내는 공장이라고나 할까?)로 인하여 조명에 의한 잦은 녹화중단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TV드라마가 한단계 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는 녹화 시작전에 2~3회의 카메라리허설을 통하여 카메라, 조명, 음향 등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녹화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 크게 달라짐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진 3)

드라마의 경우 여러개의 조명기구로 빛을 비추어 그림을 만들고 2~3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명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이 아니게 여러개의 그림자가 화면에 나타난다. 조명감독은 드라마에서 그림자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능한한 하나의 그림자만 연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기란 쉽지는 않으나 조명기구의 위치와 연기자의 동선을 잘 살펴 하나의 그림자와 만족할만한 연기자의 SKIN TONE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8. 녹화시 주의 사항

1) 녹화시 부조중실의 조명은 부분 조명으로 하여 녹화의 집중력을 극대화 시켜야 하고 산란광에 의한 모니터 등의 빛반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녹화시 스튜디오는 수은등을 비롯한 모든 상시등

을 끄고 제작에 임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세트는 천정이 없는 관계로 상시등(백열등)이 세트 벽에 떨어져 그림자가 생겨 조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어두운 통로를 세트와 세트 사이의 빈공간에 보조 조명등을 켜 어두워서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3) 녹화시에는 조명기구에 의하여 마이크 그림자가 빈번히 발생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고 오디오편과 카메라맨, 연출자등과 협의하여 절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조명기구를 이동하여 해결할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마이크와 카메라는 언제나 이동이 가능하나 조명기구는 항상 고정 시설물에 매달려 있다. 고정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한도내에서 먼저 움직여 보고 그 다음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녹화시에는 정면에 유리창이나 자개장, 유리액자에 조명이 반사되어 걸림들이 되곤 한다. 유리액자의 경우는 비스듬히 세우거나 액자 뒤에 종이 등을 끼워서 없애기도 하고 유리를 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냉장고나 자개장은 위치를 약간 변경하거나 문을 여는 방법도 있고 또 무광 스프레이나 풀칠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완벽한 해결책은 없고 조명감독과 카메라맨 연출자등과 협의하여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가 있다.

5) 드라마 녹화시 부조와 스튜디오에 많은 내방객이 왕림을 하여 (MBC 의 경우) 녹화에 지장을 주는데 리허설시에 만 견학을 허용하고 녹화시에는 가능한 통제를 시켜야 한다. 녹화는 내방객의 견학코스가 아니라 수백만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인데 그들로 인하여 라인 중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9. 녹화후에

녹화가 끝나면 조명기구등 모든장비를 세팅전의 상태로 원위치 시켜야 하며 다음팀이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상이 생긴 장비나 기구등은 메모를 남겨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고 녹화가 끝나기전에 수리가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하여 다음팀의 세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스태프간의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수고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이다. 큰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조명스태프간의 술자리를 마련하여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프로그램 제작후의 문제점과 앞으로 처리할 일을 점검할 수도 있다.

10. 맺음말

이상과 같이 드라마제작시 조명의 역할은 조명감독의 일 하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나 새로운 영상미와 보다 나은 화질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주어진 일보다는 일을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조명이 하는 일은 단순히 버튼에 조명기구를 매달아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일은 아니다. 대본을 숙지하고 연출자와 대화를 하고 다른 스태프와의 부단한 협의를 통하여 보다 나은 조명연출을 해야한다. 조명은 조명감독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조명인 모두의 힘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됨을 알았다.

이 글을 통하여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을 개진 하였는데 조명 또는 기타 선후배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고 드라마조명을 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글을 맺는다.